

정당들의 ‘꼼수’ 현수막 기승... 시민 불만 고조

옥외광고물법 개정 강력 단속 규정 어긴 정당 현수막 여전 “필수 홍보수단 추가 게시도” 도심미관 저해·안전 위협 지적 “표현의 자유 확대 대체수단을”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들은 현수막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며 적극 활용하는 반면, 시민들은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안전 문제와 미관 훼손을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당들의 ‘꼼수’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정치권이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환경 문제를 고려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불법 현수막의 난립이 줄어들었지만, 정당 현수막은 여전히 곳곳에 걸려 있다.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규제를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 정당이 15일 동안 지정된 장소에 두 개의 현수막만 걸 수 있지만, 일부 정당들은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올 들어 23일까지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은 520건에 달하며, 이 중 42건이 정당 현수막 관련이다. 광산구는 지난 12일 정당 현수막에 대



광주 광산구가 지난 17일 호남대 앞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한 점검을 실시해 총 5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0개, 자유민주당 2개, 기독교당 2개, 국민통합당 2개, 새미래민주당 2개, 기본소득당 1개, 정의당 1개 등이 적발됐다.

정당들은 현수막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며 규정을

어거가면서까지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은 정당 홍보에 필수적인 도구다. 지정계시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추가로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소수정당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현수막

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의 한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은 정당 홍보의 좋은 수단이다. 최근에는 유행을 반영한 이색적인 디자인과 문구를 접목시켜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정계시대만 활용해 정당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 부

득이하게 지정계시대가 아닌 곳에도 내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환경을 해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시민들의 보행이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는 현수막은 안전 문제를 일으켜 왔다. 미관상으로도 문제다. 도심 곳곳에 덕지 덕지 붙여 있는 정치 현수막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해 정당들이 먼저 나서서 현수막 활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규제가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병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은 현수막 밖에 없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 좋은 수단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며 “현수막이 문제가 된다면,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정치 홍보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전남대·조선대서 ‘尹 탄핵 반대집회’ 규탄 목소리

27~28일 대학가서 극우 집회 “학내 혼란 좌시하지 않을 것”

지난 1980년 5월 당시 ‘오월광주’의 주축이 됐던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일부 학생과 극우 보수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등 9개 단체는 27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옹호 세력들은 더 이상 광주와 민족 전남대를 훼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대통령 윤석열 파면선고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다음달 1일 전국대학생 탄핵반대 시국선언대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작한 대학가 시국선언을 보면, 극우세력이 참여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10명도 안 되는 대

학생을 앞세워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에서도 일부 학생이 오늘 ‘부정선거 조사 촉구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극우 유튜브버들도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를 더럽히려 하고 있다”며 “이들의 내란 선동과 민주주의 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 구성원들은 반민주적인 불법세력들로 인해 전남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전남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등 10개 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조선대는 극우 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최근 일부 극우 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명목으로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실제

는 대학생이 아닌 외부 세력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28일 조선대에서 유사한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민주적 선동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조선대는 결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구성원은 국민의 뜻을 외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이 조선대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것이다. 학내 혼란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윤준명 기자

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70대 급발진 인정돼 무죄

RPM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광주 도심에서 전기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가 급발진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대 시속 50km 구간에서 88km로 주행하며 과속을 했고

적신호에 직진을 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 전반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비정상적으로 엔진회전수(rpm)가 치솟았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부터 택시에 제동 등이나 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았고 차량 사고 기록 장치(EDR)를 봐도 차량 속도와 엔진회전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현기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 신고 잇달아... 수사 확대

기아자동차 공장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금품을 가로챘다는 신고가 잇달아 광주경찰청이 수사를 확대한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 기아차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기아차 노조 간부를 맡고있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6명에게 자녀를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인사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1명당 8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5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경찰은 기아차 채용사기와 관련해 다른 인물을 사기범으로 고소한 2건을 더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피고소인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민현기 기자

3·1절 연휴 광주·전남 ‘포근’... 잦은 봄비 이어져

3·1절 연휴기간 광주·전남 지역은 평년보다 온화한 기온과 함께 꾸준한 봄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륙고기압의 이동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광주·전남지역은 일요일인 2일까지 평년보다 2~8도가량 높은 기온이 지속된다.

이 기간 최저기온은 0도~10도, 최고기온은 10~20도이며, 연휴 마지막날인 3일부터는 고기압의 확장으로 따라 기온이 재하강하며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평년과 비슷하거나 2~4도가량 낮은 기온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광주·전남 지역은 온난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잦은 비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7일 늦은 오후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28일 새벽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오전 중으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강수량은 5mm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명 기자

비는 3·1절인 토요일 오전 다시 시작돼 5~10mm가량 내리겠으며, 출근과 개학이 이뤄지는 4일 오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3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연휴기간 낮 기온이 높게 형성되면서, 얼어있던 지반이 약화돼 낙석과 호수 등 얼음깨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